

국내외 경제
현안과 과제

2010. 3. 22.

| 최근 소비 회복세 약화와 과제

I. 경기 회복세 속 소비 약화

○ 국내 경기가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소비 증가세가 약화되는 양상을 나타냄

- 경제성장률은 2009년 1/4분기 이후 상승세로 전환한 이후, 3/4분기 0.9%, 4/4분기 6%를 기록
 - 또한 산업 생산의 경우, 2009년 12월 전년동기대비 34.3%, 2010년 1월 36.9%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
- 다만, 민간소비는 내구재를 중심으로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으나, 회복속도가 둔화되고 있음
 - 소매판매액이 전년동월대비 11월 9.7%, 12월 12.7%에서 2010년 1월 6.9% 증가로 증가세가 둔화
 - 특히, 전기대비 11월 0.5%, 12월 1.2%에서 2010년 1월 -1.3%로 감소세 전환
 - 부문별로는 2010년 1월 내구재가 39.8%로 회복세를 이어갔으나, 비내구재는 -5.2%의 감소세를 보임

< 최근 경제성장률과 소매판매 추이 >

	2008		2009						2010	
		4/4	1/4	2/4	3/4	4/4	11월	12월	1월	
경제성장률	2.2	-3.4	0.2	-4.2	-2.2	0.9	6.0	-	-	-
산업생산	3.4	-10.9	-0.7	-15.7	-6.1	4.3	16.2	18.0	34.3	36.9
소매판매액	1.1	-4.2	2.6	-4.7	1.5	2.8	10.8	9.7	12.7	6.9
(전기대비)	-	-3.6	-	1.0	5.1	0.3	4.1	0.5	1.2	-1.3
내구재	1.6	-9.6	8.1	-11.9	5.7	7.9	33.9	40.7	45.8	39.8
비내구재	1.4	0.2	1.2	-1.4	0.5	1.9	4.1	1.5	1.5	-5.2

자료 : 한국은행.

주 : 전기대비는 계절조정 수치임.

II. 소비 회복세 약화의 원인

○ (원인) 고용 회복의 지체 및 가계 부채의 증가, 노후차 세제 지원 종료 등으로 민간 소비 회복세 둔화됨

- **고용회복 지연** : 민간부문의 고용회복 지체 역시 소비회복세를 둔화시킨 요인임
 - 민간 부문의 신규취업자수는 2009년 11월, 12월, 2010년 1월 각각 -32.8만명, -16.7만명, -1.1만명으로 여전히 감소세를 보임
 - 공공 부문의 신규취업자수는 2009년 11월, 12월, 2010년 1월 각각 31.8만명, 15.1만명, 1.5만명으로 크게 축소됨
- **실질소득 감소** : 경기 침체에 따른 실질임금 감소로 소득이 감소하여 소비회복세를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
 - 근로자 1인당 실질임금은 2009년 4/4분기 239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0.5% 감소하여 소득 감소세가 이어짐
- **가계수지 악화** : 소비지출 증가가 처분가능소득 증가를 앞서 가계 흑자액이 감소함
 - 가계 흑자액은 2008년 4/4분기 70.3만원에서 2009년 4/4분기 67.5만원으로 2.8만원 줄어 전년동기대비 4.0% 감소함
 - * 흑자액 = (처분가능소득 - 소비지출)
- **소비 촉진책 소진** : 자동차 세제 지원 등 정부 정책 효과의 소진으로 민간 소비 축소됨
 - 2009년 11월 승용차 판매액 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116.3%까지 상승하였으나, 2010년 1월은 79.1%로 큰 폭으로 감소함

< 근로자 1인당 실질임금총액 추이 >

(단위 : 만원, 전년동기대비 %)

구 분	2008		2009			
	3/4분기	4/4분기	1/4분기	2/4분기	3/4분기	4/4분기
실질임금	240.5	240.2	234.1	223.9	233.1	238.9
(상승률)	-2.7	-6.4	-5.6	-4.3	-3.1	-0.5

자료 : 노동부 「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」 각 분기 보도자료.

주 : 실질임금은 상용근로자 5인 이상의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, 소비자물가를 감안한 임금총액임.

Ⅲ. 향후 전망

○ (전망) 소득 여건 개선 미흡, 부동산 가격 상승세 둔화, 가계부채의 증가, 물가상승 압력 등으로 소비 회복세가 둔화될 전망이다

- 소득 여건 개선 미흡 : 민간 부문의 고용 회복이 지체되고 있어 가계 소득의 빠른 회복이 어려워 소비 회복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존재함
 - 2010년 2월 실업자는 2개월 연속 100만명을 넘어서 117만명으로 실업률은 4.9%에 달함
 - 영세자영업자인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2010년 1월, 2월 전년동월대비 각각 17.5만명, 11.5만명이 감소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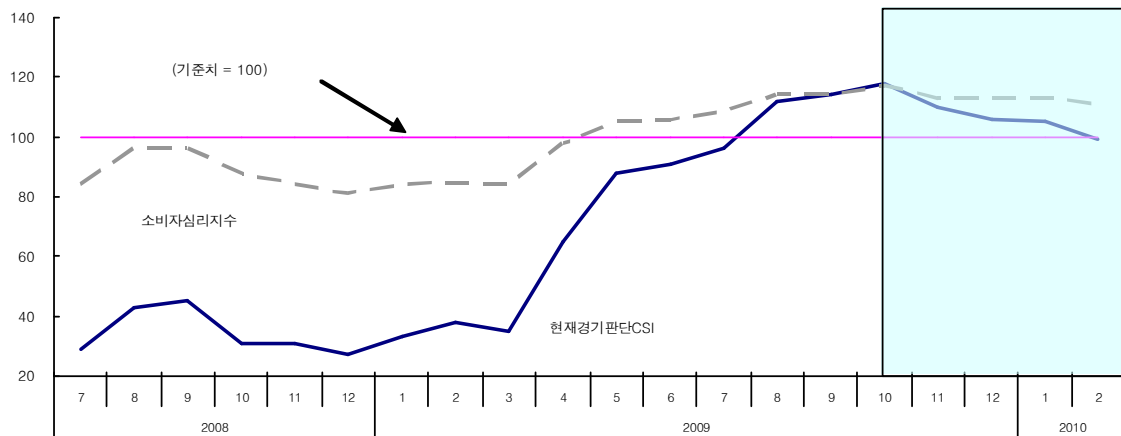
- 부동산 가격 상승세 둔화 : 자산 효과에 따른 민간소비의 증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
 - 전국주택가격지수는 2010년 1월 2.2%, 2월 2.7%로 증가세를 보이지만 2009년 10월까지 7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
 - 서울의 경우, 1월 3.5%, 2월 3.8%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금융위기 이전 5% 이상 높게 증가율을 기록했던 것에 비하면 증가세가 미약함

- 가계부채의 증가 :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향후 민간소비 회복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
 - 2009년 2/4분기, 3/4분기, 4/4분기 각각 가계부채는 697.7조원, 712.8조원, 733.7조원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임
 - 2009년 4/4분기 말 가계대출은 692조원에 달하며,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410조원에 달함

- 물가상승 압력 : 국제 유가 상승 등 물가상승 압력으로 소비 둔화가 예상됨
 - 2010년 1월, 2월 물가상승률은 각각 3.1%, 2.7%로 2009년 10월의 2.0%에서 1%p 가까이 상승함

- 소비심리 둔화 : 2009년 10월을 정점으로 소비심리는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기 회복이 견실하게 이어지지 못하면 소비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음
- 소비심리지수는 2009년 10월 117을 정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하여 2010년 2월 111까지 하락하여 전고점대비 6p 하락함
- 소비자의 현재경기판단(CSI) 지수는 2010년 2월 기준치(100) 이하인 99를 보여 7개월만에 기준치 이하로 내려감

< 소비심리지수 추이 >



자료 : 한국은행.

4. 정책 과제

○ (가계 소득 여건 개선) 신규 고용 창출 등을 통해 가계 소득 여건을 개선 공공 부문 일자리 사업을 민간의 일자리 창출 추이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운용하고,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해야 함

- 공공 부문 일자리 사업을 민간 일자리 창출 추이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운영
 - 하반기 이후 국내 경기가 둔화될 경우, 공공 부문 일자리 확대를 위해 재정 확대 방안을 사전적으로 강구
- 기업의 투자 여건 개선과 서비스업 육성책의 민간 고용 창출력 제고
 - 특히 자영업자의 취업 교육과 재취업 알선 노력 증대

○ (빈곤층의 소득 보전) 빈곤층의 가계 수지 악화가 심각하므로 빈곤층의 소득 보전을 강구

- 가계부채 증가 → 소비부진 → 경기회복 지연 → 가계의 재무건전성 악화 → 소비부진 등의 악순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채부담 완화 대책 마련
- 특히 빈곤층의 가계 보전을 위해 교육, 노동, 복지 등 통합적 지원시스템을 강구
 - 근로장려금(EITC)제도의 확대, 저소득 계층의 근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직업 교육 및 훈련비, 빈곤세대의 자녀 교육 지원비 확충 등을 추진

○ (부동산 경기 급락 방지) 미분양 아파트를 해소하고 PF 대출의 부실 확대를 방지하여 부동산 경기 안정을 추구

- 미분양 아파트에 한해서는 총부채상환비율(DTI) 규제를 탄력적으로 완화해 줌으로써 수요를 활성화
 - 또한, 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사원 아파트와 같이 복지시설 등으로 활용할 경우, 세제 혜택을 부여
- 2월 종료된 지방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시한을 다시 연장함으로써 건설사들의 프로젝트 파이낸싱(PF) 대출 부실을 최대한 방지하고 지방건설 경기 활성화를 촉진

○ (내수 시장 확대책 마련) 고소득층의 소비 활성화와 더불어 신흥국 소비자를 유치하기 위한 내수 시장 확대 방안을 강구함

- 교육, 의료, 관광 등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내 고소득층의 국내 소비를 활성화 시킴과 동시에 중국 등 신흥국 소비자를 유치하여 국내 소비 시장 확대에 힘써야 함

정유훈 선임연구원(2072-6219, youhun@hri.co.kr)